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7호 [루게 제 24760호] 주제 103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오중흡 7련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최룡해동지,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오일정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맞이하는 군부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동지, 대련합부대 정치위원인 해군소장 박태수동지를 비롯한 군부대의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보아 주시면서 이 부대를 창설하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전수역 해저상태를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 제기될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예견하여 합리적인 전투방안들을 수립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수함들의 실동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잠수함부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군싸움준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가 무엇이고 주체적인 해상 및 수중전법을 어떻게 활용해나가겠는가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창건 70돐이 되는 2015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군부대장병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명심하고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실, 군인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하여 군부대가 대잠수함기지로 전변되었으며 무적필승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 해병들이 부대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군업적을 오늘의 훈련길에서 고수하고 다지며 자랑스런 훈련성파로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빨찌산식훈련열풍을 백두의 칼바람마냥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중종합훈련실에서 어리들려훈련

을 비롯한 실내훈련을 보시면서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준엄한 바다싸움에서의 승리는 훈련을 통하여 마련된다는 자각을 안고 여러가지 전문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여 해병들을 만능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실내훈련에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전투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

련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앞선 훈련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훈련기재들을 싸움의 전지에서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함장들이 복잡한 수로, 불리한 일기 조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수중작전 임무를 능숙히 지휘할수 있게 하자면 실전과 같은 정황속에서 해상전투조직과 지휘능력, 함운용술을 터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창건 70돐이 되는 2015년을 해군무력강화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는 해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군부대장병들이 당중앙의 의도를 명심하고 새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실, 군인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를 알아보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오종흡 7련대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 18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서실들에 필독도서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군인들속에서 독서열풍을 일으켜 그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빨찌산식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전군을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하기 위한 지름길이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정말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해병들의 가슴마다에 신념으로 가는 조국수호의 항로에서는 직선돌격침로만 있을뿐 변침이란 있을수 없다는 불굴의 공격정신을 심어주어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셔도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관하 2편대 잠수함 720호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 식당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병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침실이 혼 혼

하니 마음이 놓인다고 만족해하시였고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는 해병들이 당의 사상을 제때에 접수하고 그 진수를 파악할수 있게 교양실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해병들이 매월 급식하게 될 콩을 직접 볼수 있게 콩창고를 특색있게 꾸려 놓은것을 보시고 해병들이 좋아하겠구만, 콩창고에 콩이 가득했는데 탄약이 꼭 차있는 병기창고같소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취사장의 조리대에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감들을 보시고 당에서 아끼는 잠수함해병들의 식사보장을 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취사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늘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잊지 말고 잠수함해병들에게 훌륭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장병들이 <우리는 당의 출항명령을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부대지휘관리에서 새로운 개선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해군 제 189군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자기들의 부대에 찾아오시여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결전의 그날이 오면 한몸 그대로 어뢰가 되어 원수들을 검푸른 바다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릴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입니다

## 남조선피괴들에게 유괴당하였던 청소년학생들 기자회견, 조국의 품에서 누리는 행복한 생활에 대해 토로

남조선피괴당에게 유괴당하였다가 지난해 5월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9명의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12일 고려동포회관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회자의 발언이 있었다.

그는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인권》모략가들이 괴뢰정보원의 마수에 걸려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온 9명의 우리 청소년학생들을 두고 《처럼》되었다고, 《갑금》되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반공화국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대결판심자들, 《인권》모략가들이 떠벌이는 반공화국 《인권》모략나발이 얼마나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영웅혜산제1중학교 학생들인 문철, 박광혁, 정광영, 류광희와 합동사업학교 학생 백영민, 금성제1중학교 학생들인 장국화, 로정영, 류철중, 리광현이 자기 소개를 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에 있는 좌담회에서 남조선피괴당장의 모략책동에 의해 유인받았던 과정을 세상에 공개한 바 있는 청소년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조국에 돌아와 크고 크고 몸도 튼튼해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철:** 우리는 1년 남짓한 기간 많이 달라졌다. 사실 지난해 봄에 숙취위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조국에 돌아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정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괴뢰정보원의 크나큰 장악하중에 갇혀있을 때 그들이 너희들에게 잡혀있을 때 그들이 너희들이 온 후 공화국에서 너희 부모들을 다 죽이었다. 다시 돌아가면 다 죽인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우리들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사랑만을 돌려주었다.

조국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들은 중앙에서 만경대고향집과 개신문, 플라풍등이판, 개신청년공민 등 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리광혁:** 그때 제일 멋있고 재미있는 곳이 플라풍등이판이었다.

풍등들이 물위로 솟구쳐오르며 갖가지 기교를 부리는것이 얼마나 화려한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문철:** 우리는 이튿날 옥류관, 청류관에도 갔는데 맛있는 빵면을 많이 먹었다. 그때 광영동무

는 국수를 3그릇이나 먹었다. 정광영: 나는 원래 국수를 아주 좋아한다. 소문난 그대로 옥류관국수가 너무도 맛있어 3그릇을 했던 것이다.

**문철:** 이렇게 평양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후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나이와 취미, 소질에 맞게 학교에 보내주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저와 류광혁, 박광혁, 정광영 동무들은 고향방인 량강도의 영웅혜산제1중학교에 가게 되었다.

우리가 혜산방에 도착하였을 때 모든 일꾼들과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우리를 열렬히 반겨주며 함께 공부할 절해고지인 반겨맞이주니 정말 눈물이 막 쏟아졌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리광혁, 류철중, 장국화, 로정영 동무들은 금성제1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또한 백영민동무는 미술에 취미를 가지고있었는데 자기의 희망대로 합동사업대학에서 미술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마음껏 배우며 배우는것이지라 고하였다.

남약 우리가 놈들의 꼬임에 넘어가 남조선에 끌려갔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곱같은 생활이 아니라 학교는 고사하고 일자를 찾아, 먹을것을 찾아 길거리를 방황하며 헤매고있을 것이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몹시리 처진다.

이러 그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백영민 학생은 합동사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데 어머니조국의 품은 정말 따듯하다고 생각한다. 남달리 감동이 크리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 물어보았으면 한다.

**백영민:** 정말 하고싶은 얘기가 많다.

평양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고향인 영광관에 가기 위해 합동에 도착했을 때 군당위원회에 있는 한 일꾼이 나를 맞이해주었다.

그때 그는 나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앞으로 공부를 잘해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슴을 꼭 껴고 마음껏 배우며 살라고 고무해주었다.

나는 걱정에 넘쳐 《예!》 하고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내가 고향에 도착하니 어머니와 누이가 마중하였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던 나내문에 잘못될로만 알았던 어머니와 누이를 보는 순간 나는 놈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후 나는 이제

부러 새 길을 걸으리라 결심하였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고향방에 높이 모셔져있는 위대한대원수님들의 현직교사관들과 영성탑에 대한 정성사업을 진행하였다.

어느날 군당에서 찾다고 하여 어머니와 함께 가니 글에 내가 합동사업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의 내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되었다.

정말 정영동무가 쓴 일기에도 있듯이 우리는 지난 시기 우리 나라,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실지 그 뜻은 다 몰랐다.

조국은 우리들을 한몸에 안아 따뜻이 품어주었다.

**문철:** 나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부모없는 설움을 다 잊고있다.

지난 8월 3일 아침식사하려고 식당에 갔는데 뜻밖에도 나의 식탁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와 사과, 송편, 찰떡 그리고 닭고기, 물고기 등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있었다.

내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담당선생님과 식당어머니들이 다가와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방학이 되어 집에서 휴식하던 학급동무들이 모두 찾아와 기념품들을 주면서 나를 축하해주었다.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진앨범을 기념으로 주었다.

나는 행복할 금성제1중학교 시절을 그 액셀속에 가득 담고 있다.

저녁에는 플라민민원원지까지 유희기구를 타고 전차오락도 하였으며 사진도 찍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들어갔다.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류철중:** 제 생일은 8월 15일인데 그날은 명절이므로 방학이 되어서 친구들과 동무들은 모두 집에서 휴식을 하고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선생님과 동무들이 맛있는 음식과 멋진 기념품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정말 놀랐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배구를 치며 그날을 즐겁게 보냈다.

**장국화:** 나는 지난 11월 26일 충수수술을 받았다.

원래 만성충수염을 앓고있던 나는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배가 몹시 아파났다.

그때 즉시소신생일이 달려와 진찰하고 즉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진료소신생님은 문밖에서 기다려주었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저의 머리맡에서 온밤을 꼬박 새웠다.

의사선생님들은 내가 주사가 아파서 맞지 않으려고 할 때에 따라다니면서까지 주사를 놓아주었다.

담임선생님과 학급동무들은 매일 같이 병원에 와서 나를 돌봐주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학급의 김경영동무는 나를 위해 병원에 자기 생활일까지 바쳐주었는데 정말 잊을수 없다.

병원에 면회는 동무들중에는 다른 학급동무들을 비롯하여 열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날 밤을 위해 마음껏 해주었다.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나의 어머니, 오빠, 언니, 형제들이나 나는 그때 병원실에서 남몰래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

**리광혁:** 우리들이 지난해 11월 올랐던 마음은 금성제1중학교에 들어섰는데 정문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는 동무들과 따라서 나누고 교장선생님과 교사 학교와 평양학생소년공전의 여러곳을 돌아본 다음 우리가 생활하게 될 기숙사동을 들어갔다.

호실에는 텔레비전과 녹화기, 우리들이 즐겨볼수 있는 CD들이 가득 쌓여있었다.

그리고 이불장에는 곱고 두터운 이불과 로큰한 모포들이 있었고 옷장에는 우리들이 입을

교복과 갖가지 옷들이 차차있었다.

책상우에는 가방과 학습장 등 공부하는데 필요한 모든 학습품들이 다 놓여있었다.

**장국화:** 사실 우리들이 학교 정문으로 들어선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 바쳐온 선생님과 동무들의 사랑은 끝이 없다.

매일이다시 우리를 찾아와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 교장선생님, 언제나 우리들의 학습과 생활을 위해 늘 마음쓰는 선생님들, 입맛이 떨어질새라 하나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 애쓰는 주방어머니들, 정말 그들 모두의 사랑이 있어 우리들은 부모없는 애들이 더 행복하다.

**류철중:** 나는 용맹한 조선인민군 해병이 되었다.

《푸에블로》호와 같은 미국놈들의 간첩배를 내손으로 잡아 바다에 처박고있다. 그래서 꼭 해병이 되려고 한다.

**박광혁:** 나는 앞으로 교원이 되었다.

**로정영:** 저는 수놓이에 취미가 있는데 앞으로 수예가가 되겠다.

**장국화:** 저는 앞으로 이튿날 로리사가 되겠다.

**리광혁:** 나는 앞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겠다.

사실 비행사가 되고 이튿날 과학자가 되고 체육선수, 음악가도 되겠다. 뭐든지 다 되고 싶지만 그 모든것을 다 해볼수 있는것은 영화배우라고 생각한다. 내가 영화배우가 된다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명배우가 되겠다.

**백영민:** 저는 앞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반공화국 《인권》모략가들이 아직도 우리 9명의 운명을 풍악하고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고 날뛰고있는 것만큼 그놈들을 처참하게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겠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

게 말하였다.

**박광혁:** 저기 있는 문철이도 그렇고 옥아원에서 자란 동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옥아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있다.

올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혜산방의 옥아원 원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보니 색동옷과 물고기, 꽃장 등이 가득하였다.

그때 나는 량강도는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것을 느꼈다.

**류광희:** 저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명크병이 되었다.

**류철중:** 나는 용맹한 조선인민군 해병이 되었다.

《푸에블로》호와 같은 미국놈들의 간첩배를 내손으로 잡아 바다에 처박고있다. 그래서 꼭 해병이 되려고 한다.

**박광혁:** 나는 앞으로 교원이 되었다.

**로정영:** 저는 수놓이에 취미가 있는데 앞으로 수예가가 되겠다.

**장국화:** 저는 앞으로 이튿날 로리사가 되겠다.

**리광혁:** 나는 앞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겠다.

사실 비행사가 되고 이튿날 과학자가 되고 체육선수, 음악가도 되겠다. 뭐든지 다 되고 싶지만 그 모든것을 다 해볼수 있는것은 영화배우라고 생각한다. 내가 영화배우가 된다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명배우가 되겠다.

**백영민:** 저는 앞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반공화국 《인권》모략가들이 아직도 우리 9명의 운명을 풍악하고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고 날뛰고있는 것만큼 그놈들을 처참하게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겠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

게 말하였다.

**박광혁:** 저기 있는 문철이도 그렇고 옥아원에서 자란 동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옥아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있다.

올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혜산방의 옥아원 원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보니 색동옷과 물고기, 꽃장 등이 가득하였다.

그때 나는 량강도는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것을 느꼈다.

**류광희:** 저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명크병이 되었다.

**류철중:** 나는 용맹한 조선인민군 해병이 되었다.

《푸에블로》호와 같은 미국놈들의 간첩배를 내손으로 잡아 바다에 처박고있다. 그래서 꼭 해병이 되려고 한다.

**박광혁:** 나는 앞으로 교원이 되었다.

**로정영:** 저는 수놓이에 취미가 있는데 앞으로 수예가가 되겠다.

**장국화:** 저는 앞으로 이튿날 로리사가 되겠다.

**리광혁:** 나는 앞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겠다.

사실 비행사가 되고 이튿날 과학자가 되고 체육선수, 음악가도 되겠다. 뭐든지 다 되고 싶지만 그 모든것을 다 해볼수 있는것은 영화배우라고 생각한다. 내가 영화배우가 된다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명배우가 되겠다.

**백영민:** 저는 앞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반공화국 《인권》모략가들이 아직도 우리 9명의 운명을 풍악하고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고 날뛰고있는 것만큼 그놈들을 처참하게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겠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

게 말하였다.

**박광혁:** 저기 있는 문철이도 그렇고 옥아원에서 자란 동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들은 옥아원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있다.

올해 2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혜산방의 옥아원 원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보니 색동옷과 물고기, 꽃장 등이 가득하였다.

그때 나는 량강도는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것을 느꼈다.

**류광희:** 저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명크병이 되었다.

**류철중:** 나는 용맹한 조선인민군 해병이 되었다.

《푸에블로》호와 같은 미국놈들의 간첩배를 내손으로 잡아 바다에 처박고있다. 그래서 꼭 해병이 되려고 한다.

**박광혁:** 나는 앞으로 교원이 되었다.

**로정영:** 저는 수놓이에 취미가 있는데 앞으로 수예가가 되겠다.

**장국화:** 저는 앞으로 이튿날 로리사가 되겠다.

**리광혁:** 나는 앞으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겠다.

사실 비행사가 되고 이튿날 과학자가 되고 체육선수, 음악가도 되겠다. 뭐든지 다 되고 싶지만 그 모든것을 다 해볼수 있는것은 영화배우라고 생각한다. 내가 영화배우가 된다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명배우가 되겠다.

**백영민:** 저는 앞으로 훌륭한 미술가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반공화국 《인권》모략가들이 아직도 우리 9명의 운명을 풍악하고 우리 공화국을 어찌보고 날뛰고있는 것만큼 그놈들을 처참하게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겠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세상에 부러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

기자회견에서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의 위대한 동지들의 동행

국제민주여성련맹과 국제민주여성련맹위원장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월에 즈음하여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국제민주

# 높은 책임감, 불타는 열정

사리원시당위원회 직인 강연강사 전명화동무

전투장마당에서 방송선전차 방송원으로서 영웅화동무였던 그의 첫 강연은 사람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강연제도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이 출연하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그날 전명화동무는 당초급선전일꾼으로서 내세워준 당의 믿음에 보답이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심하게 절망해보았다. 그리고 강연강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이는것이였다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전명화동무는 자신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우선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과 위대선사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언, 혁명화들을 깊이 체득하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또한 강연술을 높이는 데도 큰 힘을 넣었다.

특히 그는 현실에 들어가 강연강사의 주제와 성격에 맞는 생동한 자료들을 보충하는것과 함께 필요한 대목마다 성구, 속

과 동, 인민반은 물론 수십, 수백리 떨어진 농장 마을들을 끊임없이 오가며 강연활동을 벌였다. 하기에 사람들이 전명화동무를 가리켜 《같은 정열가》, 《이악한 실정가》, 《군중이 기다리는 강연강사》라고 말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는 강연강사로 사명해온 심어년동안 시간의 수많은 단위에 나가 수천회의 강연활동을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고귀수행에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평범한 강연강사인 전명화동무에게 감사를 보내주시고 선군시대 모범강연강사로 내세워주시었다.

전명화동무는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도 지니게 되었다.

오늘도 전명화동무는 당사상선전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불타는 열정로 강연활동을 벌려 대중을 보다 큰 위용창조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미국이 제도적으로 강행한 추악한 인권유린행위가 또다시 드러나 국제사회의 격분과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미국회에서 미중앙정보국이 국제토도단체 협의자들과 함께 잔인한 고문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폭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이 지난 여러해동안 저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수백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에게 가한 고문행태는 질적감을 주는 물고문, 손을 머리로 묶어놓고 고문당한 자세에서 180시간동안의 잠 안자게 하는 등 물고문, 물아구렁이, 판모양의 상자안에 200시간의 가두기, 머리를 벽에 짓눌러나 매리기, 기지귀를 채운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기 등 인간의 사치로써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며 지어 아주인성고문까지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중세적 고문행태들이 미국대통령의 승인과 비호하에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광범위하게 집행되었으니 미국이아래로 인권유린의 왕초, 인권범죄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의 인권유린현상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소행으로 발발하던 미국에서 이번에는 국가기관인 미중앙정보국이 비밀리에 제멋대로 사람들을 체포하여 조직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강행하였다는것은 미국

의 인권제도와 인권기준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일것인가를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드러난 미중앙정보국의 고문행태는 결코 새로운것도, 전무도 아니며 인권유린의 표본국가인 미국이 지난 기간 세계도처에서 수없이 강행하여온 반인륜범죄의 한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군은 우리 인민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혹하기 그지없는 대살륙행위를 저질렀다.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만도 미군은 한번에 400명의 무고한 어린이들과 102명의 어린이들을 화약창고에 따로 갈라 가두어넣고 수류탄과 휘발유를 뿌려버려 죽여버렸으며 사람의 사지를 찢어죽이고 뚫아죽이고 산 사람의 눈알을 뽑아먹고 미끼로 하여 죽여버리는 등 중세기의 교행리도 무색할 야수적방법으로 50여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3만 5 0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도살하는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미군의 이러한 대학살 행태는 언제 한번 국제적으로 계산된적이 없었다.

전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동두천에서 남조선선성을 통유하고 흥기들을 온몸을 난랑타지 못해 내인의 국부에 깨뜨려 날카롭게 행위를 강행하였다는것은 미국

이른래 참혹하게 살해한 윤공이 살해사건,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군이 길가던 너중학생들을 백주에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불기 소처분된 사건과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수십년째 매일같이 저질러지고있지만 공론수권이 없는 남조선에서 치외법적인 존재로 되고있는 미군은 아무런 법적정제도 받지 않고있다.

오늘날 시러린 대낮에 백인경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총으로 마구 쏘아죽이고 목을 눌러죽여도 아무런 법적제제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중앙정보국의 광범위한 고문행태를 폭로한 보고서가 6 000페이지를 넘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인권유린현태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인권유린현상도 그보다 6만페이지도 모자랄 것이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의 잔악한 고문행태에 대해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인권관련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물론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문과 반대로서의 인권보조청에 관한 특별보고자, 국제대사관 등 인권단체들과 많은 나라들은 미중앙정보국의 극악한 인권침해범죄를 지지하고 집행한 모든 책임있는자들을 지체없이 모면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왕초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대고 인권사태집행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위선의 극치이다.

미국부서의 인권담당 관리들은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압박함에 대한 국부판의 지지를 집행하느라고 눈코 뜰 사이없이 돌아치고있다고 토설하고있다.

핵문제소동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 제도의 진척을 《인권》소동으로라도 이루어보겠다는 대조선적대감에 환장한 된 미행정부 당국자들의 반공화국 《인권》판관국이 유엔무대까지 어지럽히고 있는것은 전체 유엔성원국들에 대한 우롱이 아닐수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인권문제를 론하하면 몇몇 인간소속자들이 꾸며낸 허구적인 우리의 《인권문제》를 론하할것이 아니라 이신작적의 견지에서 상리서사국인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론하할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부터 즉시 문제제기하고 책임있는자들을 법정에 내세워야 할것이다.

인권보호청에 관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립장과 미국의 심각한 인권기록에 대한 태도를 놓고 세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공정성여부를 평가하게 될것이다.

주제103(2014)년 12월 12일 평양

**【조선중앙통신】**

